

2020년 3월 8일
미취학부 가정예배

가정에배 순서지

■ 입 레 ----- 인도자
“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
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”

■ 신앙고백 ----- 사도신경 ----- 다같이

■ 찬 송 -----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----- 다같이

■ 봉 헌 ----- 다같이

■ 대표기도 ----- 가족 중 한 명 ----- 인도자

“하나님, 오늘도 우리 가족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정예배를
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,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
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”

■ 성경봉독 ----- 열왕기하 5장 14-15절 (구약 569p) ----- 다같이

14: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
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

15: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
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
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

■ 믿음의 고백 ----- 다같이

“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.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
계세요.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세요.”

■ 말 씀 -----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쳐주셨어요 ----- 인도자

우리 몸에 상처를 입거나 피부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?(아이들의
대답을 들어주세요). 맞아요. 상처 난 부위에 약을 바르기도 하고 온 몸이 가려워서
계속 긁기도 해요. 심한 경우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약을 처방 받아서 먹어요. 그
런데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. ‘한센병’은 아주 심한 피부병이
예요. 이 병은 피부의 신경을 망가뜨려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다쳐도 고통조
차 느끼지 못해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는 점점 상하고 거칠
어져요. 오늘 말씀에 소개된 나아만은 이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어요. 그는
한센병을 치료 받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(엘리사)이 말해주

말씀이야기
영상QR코드



2020년 3월 8일
미취학부 가정예배

로 요단 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고, 깨끗하게 나왔어요.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
서는 이방 나라 사람인 나아만을 고쳐주셨던 걸까요?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사람
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.

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세요.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
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
요. 나아만은 혼자 힘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
필요했지요. 엘리사의 종이 나아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었어요. 엘리
사가 나아만에게 명령한 것은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것이
였어요. 요단 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올 거라고 했어요. 하지
만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어요.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
직접 나와 자기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치
유의 기적을 베풀 것이라고 기대했거든요. 나아만은 강에서 씻는 일 정도는 자
기 고향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상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
지하지 못할 뻔했어요. 하지만 결국 말씀에 순종했고, 하나님은 나아만의 병을
고쳐 주셨어요.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고침 받은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
었어요.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으며, 진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밖에
없다는 것 말이에요.

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. 우리는 모두 죄라는
죽을병에 걸려 있어요.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. 나아만
처럼 우리 모두는 치료자가 필요해요. 하나님은 나아만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
주셨어요. 우리도 죄라는 병에 걸려 아프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
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세요. 온전한 치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
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!

■ 기 도 ----- 다같이

하나님, 이 시간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.

하나님이 나아만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것처럼, 우리도 죄라는 병에 걸려
아프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.

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.
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■ 주기도문 ----- 다같이